

## 현대 독일어 제3구문의 제약 기반적 분석

류병래(충남대학교)

### 1. 서론<sup>1)</sup>

본 논문의 대상은 현대 독일어의 제3구문 die dritte Konstruktion이다. 제3구문이란 용어는 den Besten & Rutten(1989)이 다음 (1b)와 같은 네덜란드어의 부정사 구문을 지칭하는 용어로 제안한 이후, 상응하는 독일어 구문을 부르는 명칭으로 독어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어 제3구문을 살펴 보도록 하자.

(1) Niederländisch [den Besten & Rutten (1989)]

- a. ..., dat zij waagden [de vergadering te verstoren]  
 dass sie wagen die Versammlung zu verhindern
- b. ..., dat zij [de vergadering] waagden [te verstoren]  
 dass sie die Versammlung wagen zu verhindern

(1a)에서는 부정사구인 [te verstoren]가 자신의 보충어인 [de vergadering]와 함께 정동사인 [waagden]의 오른쪽에 외치되어 있다. 그러나 (1b)는 내포된 부정사 [te verstoren]이 정동사인 [waagden]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나 자신의 보충어인 [de vergadering]과는 정동사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b)와 같이 부정사와 보충어가 정동사를 사이에 두고 분리될 수 있는 문법적 특징이 독일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대표적인 몇 문헌을 제시하면 Santorini & Kroch(1990),

1)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은 독일어문학회·독일언어문학연구회 1998 춘계합동학술대회(5월 8일~9일, 대구대학교 정보통신센터)에서 발표되었다. 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조언을 해 준 참가자들, 특히 광병휴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익명의 독어학 심사자 세 분은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내용과 문체상의 개선점을 지적해 주었다. 그들의 조언이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린다.

Geilfuss(1991), Haider(1993, 1993), Wöllstein-Leisten(1994), Wöllstein-Leisten & Heilmann(1997)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제 독일어의 제3구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2) a. ..., dass ich [[das Fahrrad] zu reparieren] versprochen habe  
 b. ..., dass ich versprochen habe, [[das Fahrrad] zu reparieren]  
 c. ..., dass ich [das Fahrrad] versprochen habe [zu reparieren]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독일어 부문장 구성은 (2a)에 제시된 것과 같다. (2a)에 나타난 부문장 구성의 특징은 부문장의 어순은 SOV이고 중심적 내포 *zentrale Einbettung*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2b)에 제시된 문장에서와 같이 *versprechen*과 같은 일부 통제동사의 경우 내포된 부정사인 [zu reparieren]이 자신의 보충어인 [das Fahrrad]와 함께 부문장의 정동사 다음으로 외치 *Extrapolition*될 수 있다. 네덜란드어 예문인 (1b)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독일어 예문 (2c)에서는 내포된 부정사구인 [zu reparieren]이 자신의 보충어인 [das Fahrrad]와 분리되어 나타난다. (2c)같이 부정사구가 정동사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보충어와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구문이 독일어의 제3구문이고, 이는 동시에 본 논문의 대상이다.

제3구문의 구조를 정확하게 밝히고 기술하는 일은 독일어 문장 구조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우선 (2c)에 제시된 제3구문이 완전한 절이 외치된 것으로 미루어 (2a)의 구조가 절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기존의 견해, 특히 원리와 매개변수 이론 *Prinzipien- und Parameter-Theorie* (PPT) 틀 내에서 행해진 분석들이 문제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2a)와 (2b), (2a)와 (2c) 그리고 (2b)와 (2c)의 문법적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구문인 예문 (2c)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나아가서 일반적인 독일어의 부문장인 (2a)의 구

2) Uszkoreit (1987: 151)도 위와 유사한 구문의 존재를 관찰하기는 하였으나 구조상의 차이가 아닌 단순한 어순상의 변이형으로만 간주하여 초점상승 *Focus Raising* 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Uszkoreit를 첫 발견자로 여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독일어 문장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제3구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기존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 분류기준은 [das Fahrrad zu reparieren]이 심층적으로 문장성 Satzwertigkeit을 가진 하나의 절을 이룬다고 간주하느냐 여부이다. 대비되는 두 가지 분석법의 차이가 다음 (3)에 괄호 치기 표기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 (3) ..., dass ich das Fahrrad zu reparieren versprochen habe  
 a. ..., dass ich [[[das Fahrrad zu reparieren] versprochen] habe]  
 b. ..., dass ich [das Fahrrad [[zu reparieren] versprochen] habe]

하나는 [das Fahrrad zu reparieren]이 완벽한 하나의 절로서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그 견해에 의하면 문장의 (2a)의 구조가 (3a)와 같이 중심적 내포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다른 하나의 견해는 [das Fahrrad zu reparieren]이 완벽한 하나의 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zu reparieren] versprochen] habe]가 하나의 복합 동사구를 이루고 [das Fahrrad]가 그 복합동사구의 보충어로 기능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PPT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의 몇 예를 들면 동사상승 Verbanhebung 이라는 장치를 이용한 Grewendorf(1991), Rosengren(1992) 등과 보충어의 소개 Evakuierung을 제안한 Fanselow(1989), 또 재분석 Reanalyse를 이용한 Stechow & Sternefeld(1988)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주로 HPSG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에서 주장되어 왔는데, Kiss(1993, 1994), Pollard(1996), Hinrichs & Nakazawa(1998), Müller(1999) 등이 그런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어 제3구문에 대한 새로운 제약기반적 분석을 핵심어 주도 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Pollard & Sag(1994), Sag & Wasow(1999) 참고) 틀 내에서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짜여져 있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독일어 제3구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제3절에서는 이전의 분석을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을 구문문법적 제약으로 제안한다. 제4절에서는 본 논문의

논지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점 등을 제시하기로 한다.

## 2. 자료: 현대 독일어 제3구문의 문법적 특성

### 2.1. G. Bech의 장이론과 (비)정합성<sup>3)</sup>

독일어 부정사 구문의 분석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구문들의 특성은 전통적인 독어학에서 가정되고 있는 위상적 장이론 topologische Feldtheorie의 중장 Mittelfeld에 두 개 이상의 동사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동사들이 문장의 경계를 뚜렷하게 이루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특성은 네덜란드어나 독일어, 프리즐란드어 등 서게르만어의 특성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독어학계에 잘 알려진 위상적 장이론은 좌측 문장경계 linke Satzklammer와 우측 문장경계 rechte Satzklammer를 기준으로 세 개의 장을 구분해서 각각 전장 Vorfeld, 중장, 후장 Nachfeld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이론은 동사구의 내부구조와 동사들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되어 왔다 (Kiss(1993) 참고). Bech(1955/57)는 이런 전통적인 위상적 장이론과는 약간 다른 동사와 그들의 보충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장이론을 제안했으나, 일반적으로 동사연결체의 장이론 Topologie der Verbalkette으로 알려진 이론이 그것이다.

Bech(1955/57)의 동사연결체의 장이론에 의하면, 모든 동사에는 동사장 Verbalfeld이 할당되는데, 이 동사장에는 동사, 동사의 보충어 그리고 동사의 수식어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Bech(1955/57)는 정합장 Kohärenzfeld을 도입하는데, 이 정합장은 여장 Restfeld과 항상 여장의 뒤에 위치하는 종장 Schlussfeld을 포함한다. 하나의 종장은 후치된 어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합장 내의 모든 부정형 동사들을 포함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형동사를 포함한다. 종

3) Kohärenz의 우리말 번역은 '정합성'과 '긴밀성'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수송(1991)에서는 정합성이란 용어를, 최도규(1999)에서는 긴밀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정합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장의 요소들은 (4)에 표로 제시한 것과 같이 동사들이 하나 이상 나올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그 개수의 제한이 없다. 물론 경험적으로는 네 개 이상의 동사들이 연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독일어 복합동사구에 대해서는 Evers(1975), Baker(1993), den Besten & Edmondson(1983) 참고).

(4) Tabelle der Elemente im Schlussfeld

Schlussfeld 요소의 수	Schlussfeld 요소의 배열	예문
1 (V1)	V1	(5a)
2 (V1, V2)	V2V1 *V1V2	(5b)
3 (V1, V2, V3)	V3V2V1	(5c)
	V1V3V2	(5d)
4 (V1, V2, V3, V4)	V4V3V2V1	(5e)
	V1V4V3V2	(5f)
	V1V2V4V3	(5g)

종장은 다시 두 개의 장, 즉 상부장 Oberfeld과 하부장 Unterfeld으로 구성된다. 하부장은 하나의 종장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상부장은 수의적이어서 항상 종장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상부장이 나올 경우에는 엄격한 어순의 제약이 있어서, 상부장은 항상 하부장을 선행해야 한다. 표 (4)에 제시된 각 구성에 해당하는 예문은 (5)와 같다. 해당하는 예문의 번호는 이미 (4)의 표에 제시되었다.

- (5) a. ..., weil er [schläft]  
 b. ..., weil er [schlafen wird]  
 c. ..., weil er [schlafen können wird]  
 d. ..., weil er [wird [schlafen können]]  
 e. ..., weil ich Cecilia Hans die Nilpferde [füttern helfen lassen habe]  
 f. ..., weil ich Cecilia Hans die Nilpferde [habe [füttern helfen lassen]]  
 g. ..., weil er die Lieder [wird haben [singen können]]

위의 (5d)와 (5f), 그리고 (5g)의 예에서 밑줄이 쳐져 있는 요소들은 종장의 두 구성 장인 상부장과 하부장 중에서 상부장에 속하는 요소들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V1V2V4V3의 연쇄에서 보듯 상부장의 요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상지배 Statusrektion하면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상지배하면서 배열된다는 점이다.

독일어 동사 연결체들은 정합성을 보이느냐의 여부에 따라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합성을 보이는 동사들의 연결체만을 포함하는 구문을 우리는 정합구문으로 분류하고, 정합성을 보이지 않는 동사들의 연결체를 포함하고 있는 구문을 우리는 비정합구문으로 분류한다. 두 구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충어를 포함한 동사구의 위치 가능성, 주제화 Topikalisierung 가능성, 그리고 부정사 동반 관계문 Rattenfänger ('pied-piping') 가능성을 꼽는다. 이들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성을 지닌 동사 연결체를 만드는 *müssen*과 같은 화법조동사와 비정합적인 동사연결체를 구성하는 4격 보충어를 취하는 *überreden*과 같은 목적어 통제동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sup>4)</sup>

첫째, (6)에 예시한 바와 같이 정합적인 동사 연결체를 구성하는 화법조동사 등은 반드시 내치되어 나타나야 하지만, (7)에 예시한 바와 같이 비정합적 동사 연결체를 구성하는 목적어 통제동사 등은 부정사구가 자신의 보충어와 함께 외치되어야 한다.

(6) Intraposition

- a. ..., weil Hans den Wagen zu reparieren müssen hat
- b. \*..., weil Hans müssen hat, den Wagen zu reparieren

(7) Extraposition

- a. \*..., weil Hans den Wagen zu reparieren überredet hat
- b. ..., weil Hans überredet hat, den Wagen zu reparieren

4) 정합성에 관한 원래의 개념은 Bech(1955/57)를 참고하고, 정합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Haider(1993), Stechow(1988), Kiss(1993) 등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정합성에 관한 한국어로 된 소개와 Haider(1991, 1993)에 입각한 정합성의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최도규(1999)를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8)에 예시한 바와 같이 정합적인 동사 연결체를 구성하는 화법조동사 등은 관계사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부정사 동반 관계문이 불가능하지만, (9)에 예시한 바와 같이 비정합적 동사 연결체를 구성하는 목적어 통제동사 등은 부정사 동반 관계문을 허용한다.

(8) Rattenfänger: unmöglich

- a. Das war eine Annahme, die er sich merken musste
- b. \*Das war eine Annahme, die sich merken er musste

(9) Rattenfänger: möglich

- a. Das ist der Wagen, [den] er Peter überredet [zu reparieren]
- b. Das ist der Wagen, [den zu reparieren] er Peter überredet

셋째, (10)에 예시한 바와 같이 정합적인 동사 연결체를 구성하는 화법조동사 등은 부정사가 목적어와 함께 전장에 놓여 주제화될 수 없지만, (11)에 예시한 바와 같이 비정합적 동사 연결체를 구성하는 목적어 통제동사 등은 부정사가 목적어와 함께 전장에 놓여 주제화될 수 있다.

(10) Topikalisierung von Verbalkomplex

- a. Peter will nicht [das Buch lesen].
- b. [Lesen] will Peter [das Buch] nicht.

(11) Topikalisierung von Verbalkomplex

- a. Peter hat mich überredet, den Wagen zu reparieren.
- b. \*[Zu reparieren] hat mich Peter [den Wagen] überredet.
- c. \*[Zu reparieren] hat mich Peter überredet, [den Wagen].

위에 제시한 통사현상 중에서 외치현상과 부정사 동반 관계문을 허용하고 동사구 일부의 주제화 등을 허용하지 않는 동사 연결체와 그렇지 않은 동사 연결체로 분류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는 비정합적인 구성을 보이고, 후자는 정합적인 구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동사 연결체가 갖는 문법적 특성이 다른 것은 각 개별 동사의 고유한 속성이라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Bech(1955/57)에 의하면 정합적인 구성을 보이는 동사 연결체가 등장하는 구문은 어순뒤섞기 Scrambling 현상을 허용하고, 화법조동사의 선치현상을 허용한다.

(12) Scrambling & Modalflip

- a. ..., weil ihn Peter zu reparieren versucht haben wird
- b. ..., weil ihn Peter wird zu reparieren versucht haben

한편, 동사들 중에는 정합적인 구성과 비정합적인 구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동사들이 있다. 이 논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제3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한다. 기존 분석의 문제점과 새로운 분석을 제안하기 전에 그런 제3구문의 통사적 특성을 더 알아 보기로 한다.

**2.2. 제3구문의 양면적 특성**

제3구문이 가능한지 여부는 복합동사구를 형성하는 동사의 통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제3구문을 허용하는 동사들은 Hinrichs & Nakazawa(1998: 12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다.

(13) 제3구문을 허용하는 동사 (Hinrichs & Nakazawa(1998: 125))

- a.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는 주어 통제동사  
versuchen, glauben, vergessen, wagen, vermögen, meinen, behaupten, vorhaben, zugeben, hoffen, versäumen, ...
- b. 수의적으로 3격목적어를 동반하는 주어 통제동사  
versprechen, drohen, zusichern, schwören, ...
- c. 국면동사 Phasenverb (주어통제 상승동사)  
anfangen, aufhören, beginnen, ...
- d. 3격 통제자를 동반하는 목적어 통제동사  
empfehlen, befehlen, nahelegen, verbieten, untersagen, gestatten, bedeuten, freistellen, zutrauen, gebieten, ...



제3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은 비정합적인 구성을 보이는 동사 연결체들이 보여주는 통사현상들을 허용한다. 즉 제3구문을 형성하는 동사들은 (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동사구 전체의 외치를 허용하고,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계문이 관계사와 동반되어 나타나며, (16)에 예시한 바와 같이 동사구 연결체의 전장으로서의 주제화도 역시 허용한다. 따라서 제3구문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통사적 특성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14) Extraposition

- a. ..., weil Hans den Wagen zu reparieren versprochen hat
- b. ..., weil Hans versprochen hat, den Wagen zu reparieren

(15) Rattenfänger

- a. Das ist ein Umstand, den er kaum zu berücksichtigen versprochen hat
- b. Das ist ein Umstand, den zu berücksichtigen er kaum versprochen hat

(16) Topikalisierung:

- a. Peter hat nicht den Wagen zu reparieren versprochen
- b. Zu reparieren versprochen hat Peter den Wagen nicht

이와 같이 정합적인 구성과 비정합적인 구성이 갖는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일련의 동사 연결체, 즉 수의적으로 정합적인 구성을 보이는 동사 연결체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수의적으로 정합적인 동사 연결체의 특성

- a. 동사 연결체가 전장에 놓일 수 있다.
- b. 동사 연결체가 부사 등 다른 요소에 의해서 분리될 수 없다.
- c. 부정어의 작용역이 모든 동사를 포함한다.
- d. 대명사가 주어 앞에 있는 Wackernagel 위치로 이동한다.<sup>5)</sup>

5) 독일어 어순에서 하나 혹은 다수의 비강세 대용어 Anapher (예를 들어 인칭대명사나 재귀대명사 등)가 장이론적으로 말해 중장의 첫 요소로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주어 앞에도 위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Jacob Wackernagel (1853-1938)이 처음으로 판

e. 원거리 수동이 가능하다.

(17)에 제시되어 있는 수의적으로 정합적인 동사 연결체의 특성은 독일어 복합동사구 전체의 분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을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여기서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제3구문에 대한 기존의 분석을 검토하고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기로 한다.

### 3. 기존 분석의 문제점과 새로운 분석의 제안

#### 3.1. 기존 분석의 문제점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구문이 독어학계의 관심 대상이 된 것은 네덜란드어의 해당구문을 발견하고 분석한 den Besten & Rutten(1989)이다. 비록 그들의 분석은 네덜란드어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두 언어의 유사성에 비추어 독일어의 분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분석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완전한 동사구를 정동사의 오른쪽에 위치시키고, 이 위치된 보충어를 포함한 동사구를 임시변통적인 조작을 통해 어순 뒤섞기가 가능한 구조로 만든 다음, 이어서 이 위치된 동사구 안의 보충어들만을 주문장 안으로, 즉 정동사 앞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제3구문의 위치분석”과 “어순뒤섞기”를 결합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sup>6)</sup>

그러나 이 분석은 독일어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난점이 있다. 첫째는 네덜

---

찰하고 정리하였다. 그 위치를 그의 이름을 따라 Wackemagel 위치라 부른다. 더 자세한 내용은 Zifonun, *et al.* (1997: 2189f.) 참고.

6) 다른 언어의 제3구문의 분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프리즐란드어 제3구문을 동사투 영상승의 일종인 te-V 상승으로 분석한 de Haan(1993)을 참고하고, 수형도 부가문법(Tree Adjoining Grammar, TAG) 틀 내에서 분석한 논문으로 Rambow(1992, 1994)를 꼽을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전산구현까지를 염두에 둔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란드어의 동사구 내포문 형성에서 가해지는 어순제약이 독일어와는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독일어의 경우 외치가 가능하려면 만족되어야 하는 문장성이 어순뒤섞기의 전제인 비문장성 Nicht-Satzwertigkeit과 근본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동할 때는 문장성을 유지하고, 이동한 후에는 문장성을 파괴하는 임시 변통적인 조작을 가정하지 않고는 설득력 있는 일관성을 가진 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Chomsky의 PPT 틀 내에서 이루어진 거의 모든 분석은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외라면 크게 보아 Chomsky의 PPT 내적인 원리들을 존중하면서도 독자적인 문법모형을 제안하고 있는 Haider(1991, 1993)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으로 말해서 PPT 틀 내에서 이루어진 분석들은 얼마나 덜 이론 내의 다른 부분들과 모순을 일으키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문장의 내부구조를 CP에서 IP로 바꾸는 등 임시 변통적인 조작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PPT 이론 내적인 쟁점들은 본 논문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논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 대신 Grewendorf(1991: 278)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부장변위 Oberfeldumstellung를 이용한 분석을 검토하고, 이 분석이 근본적으로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새로운 분석을 제안하기로 한다.

### 3.1.1. 제3구문이 상부장변위가 아닌 증거

Grewendorf(1991: 278f.)는 제3구문을 상부장 변위 (Modalflip)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상부장이란 종장을 구성하고 있는 장 중의 하나로서, 상부장변위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상지배하는 동사연결체의 앞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상지배하는 동사들이 위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현상은 위에서 예문(5g)를 통해 예시를 한 바 있다. 상부장변위가 일어나면 정동사는 항상 상부장의 맨 앞에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순서 상으로 정동사가 종장에 나타나는 동사 연결체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된다.

우리는 제2절에서 상부장변위가 정합적인 구성을 갖는 동사 연결체들이 보이는 통사적 특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3구문이 정합적인 구성의 갖는 특성과 비정합적인 구성이 갖는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부장변위로서의 제3구문은 가능한 분석법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18)과 같은

구문을 위의 (4) 동사연결체의 구성에서 [V1V2V3] 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로 보면, 외치가 두 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상부장변위가 두 번 일어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기에 더 그렇다.

(18) ..., weil Karl versucht anzufangen abzunehmen

그러나 Grewendorf(1991: 278f.)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제3구문을 일종의 상부장변위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옳은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 이유를 Müller(1999: 267)의 논지를 따라 두 가지로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의미적으로 (18)에 해당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가장 합리적인 구문은 (19a)가 될 것이다.

(19) a. ..., weil Karl [abzunehmen anzufangen versucht]

b. ..., weil Karl [versucht] [abzunehmen anzufangen] (= (18))

(19a)에서 [versucht]가 상부장변위를 통해 하부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구조는 대략 (19b)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b)는 (18)과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18)을 (19a)에서 [versucht]가 상부장변위를 통해 이동해 갔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 [versucht [anzufangen]]가 상부장변위를 통해 [abzunehmen]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

(20) a. ..., weil Karl [abzunehmen anzufangen versucht]

b. ..., weil Karl [versucht [anzufangen]] [abzunehmen]

이 경우 (2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순은 (18)과 같다. 그러나 Bech (1955/57)에 명시된 것처럼 상부장에는 부정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상부장에는 정동사나 원형 형태의 동사들은 나올 수 있으나 zu-부정사나 과거분사는 나오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Grewendorf(1991)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3구문을 상부장변위를 이용해서 분석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가 내린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있다. (21a)에 상응하는 제3구문이 (21b)이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 (21) a. ..., weil Karl das Auto [zu reparieren versucht hat]  
 b. ..., weil Karl das Auto [versucht hat] [zu reparieren]  
 c. \*..., weil Karl das Auto [hat] [versucht] [zu reparieren]

만약 (21a)에 상부장변위가 일어난다면 (21c)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만다. 그 이유는 상부장변위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상부장 내부에서의 동사들의 어순이 (21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상지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독일어에서 불가능한 어순이다.

결국 (18)은 제3구문도 아니며 상부장 변위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3구문을 상부장변위로 간주하려는 시도도 옳지 못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8)은 외치가 연속해서 두 번 일어난 구문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anfangen*과 같은 국면동사 Phasenverb 들은 비정합적인 구성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외치가 되면 자신이 위상지배하고 있는 동사도 반드시 외치가 일어나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Hinrichs & Nakazawa (1998: 149) 참고), (18)은 이중으로 외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문이며 그 분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3.1.2. 논항합성과 자질을 이용한 특수한 VP 외치구문으로서의 제3구문

Hinrichs & Nakazawa(1998)는 논항합성과 어휘규칙 그리고 어순규칙 등을 사용하여 독일어의 복합동사구 구문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이 제3구문을 분석하는 방법도 HPSG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장치들을 사용하는 복합동사구 분석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분석을 검토하려면 엄밀히 말해서 복합동사구 분석에 관한 모든 장치들을 소개해야 하는 바, 이는 분명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로 검토를 하기로 한다.<sup>7)</sup>

그들은 독일어를 위한 핵심어-보충어 ID 도식을 우선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제안한다. 이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 Pollard & Sag(1994)의 핵심어-보충어 ID 도식에 [NPCOMPL +] 이라는 자질과 자질값을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NPCOMPL +]은 핵심어-보충어 ID 도식에 의해서 생성되는 VP가 핵심어인 동사의 보충어를 포함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2) 핵심어-보충어 ID 도식 (Hinrichs & Nakazawa(1998: 132))

$$\left[ \text{SYNSEM} \left[ \text{LOC} \left[ \text{CAT} \left[ \begin{array}{l} \text{HEAD verb} \\ \text{VAL} [\text{COMPS} < >] \\ \text{NPCOMPL} + \end{array} \right] \right] \right] \right] \Rightarrow C^*, H_{verb}$$

그들은 또 복합동사 ID 도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핵심어-보충어 ID 도식과는 달리 정형이 아닌 동사형태가 핵심어이고 [NPCOMPL -]이기 때문에 보충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동사들만을 보충어로 갖는 동사구를 만들도록 해준다. 따라서 복합동사 ID 도식에 의해 생성된 연결체는 어떠한 보충어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동사들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23) 복합동사 ID 도식 (Hinrichs & Nakazawa(1998: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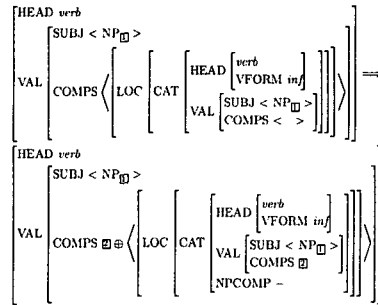
$$\left[ \text{CAT} \left[ \begin{array}{l} \text{HEAD verb} \\ \text{NPCOMPL} - \end{array} \right] \right] \Rightarrow \begin{array}{l} H \left[ \begin{array}{l} \text{word} \\ \text{CAT} \left[ \text{HEAD} [\text{VFORM} -\text{fin}] \right] \right] \\ C \left[ \text{CAT} \left[ \begin{array}{l} \text{HEAD verb} \\ \text{NPCOMPL} - \end{array} \right] \right] \end{array} \right]$$

- 7) HPSG를 내에서 독일어 복합동사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가정들이 필요한데, FLIP 자질이나 NPCOMPL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Hinrichs & Nakazawa(1989a, b)를 참고하고, 이들의 다양한 적용과 다른 구문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는 Hinrichs & Nakazawa(1993, 1994)를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정합적 복합동사구의 기본구조가 중심적 내포가 아니라는 점과 논항합성을 통해 복합동사구를 분석법 등에 대해서는 위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들은 독일어의 제3구문을 VP 외치구문의 특수한 경우로 분석을 한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정합적인 구성을 보이는 복합동사구를 복합동사 ID 도식으로 생성하고, [NPCOMP -]이라는 제약을 가해 복합동사구에 보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게 만든 다음, 내포되어 있는 동사구만을 외치시키는 분석이다. 그들은 외치된 복합동사구를 포함한 복합동사구 내에서의 요소들의 어순을 일련의 어순규칙을 가정하여 제약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과정에서 영어에는 없는 자질 두 가지를 설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위에 말한 NPCOMP 이고, 다른 하나가 EXTRAP이다. 동사구가 [NPCOMP +] 값을 가지면 동사구내에 동사의 보충어가 실현되게 되어 있고, [NPCOMP -] 값을 가지면 동사구내에 동사의 보충어가 상위동사의 하위범주화 틀로 요구된 논항이 전이되어 복합동사구 내에는 보충어가 실현되지 않게 한다.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논항합성 Argumentkomposition이고 어휘기재항에는 ○ 안에 +가 들어 있는 기호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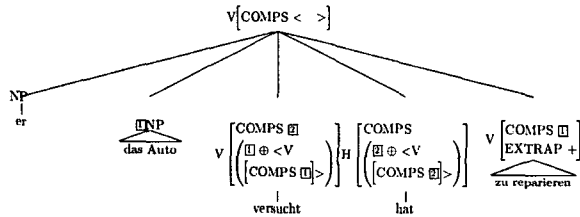
(24) 제3구문 어휘규칙 (Hinrichs & Nakazawa(1998: 137))



또한 모든 외치된 구들은 [EXTRAP +] 값을 갖게 하고, 그렇지 않은 구들은 항상 [EXTRAP -] 값을 갖도록 한다. 그런 다음 [NPCOMP]과 [EXTRAP]의 자질 명세에 따라 어순규칙을 설정하여 경험적인 일반화가 문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Hinrichs & Nakazawa(1998)에서는 문장 전체의 구조가 계층적이 아닌 일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25a)와 같은 제3구문은 (25b)와 같은 구조로 분석된다.

- (25) a. ..., weil er das Auto versucht hat zu reparieren.  
 b.



그러나 Hinrichs & Nakazawa(1998)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들은 다음에 제시하게 될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책은 있어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첫째, *geben*과 같은 수여동사가 *versuchen*과 같은 제3구문을 유도하는 동사에 내포되었을 경우, 수여동사의 보충어 중 하나만 외치된 구에 포함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예문을 Hinrichs & Nakazawa(1998)의 분석에 의하면 비문법적인 것으로 배제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내포된 동사의 어휘기재항에 [NPCOMPL -]이 기재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26)과 같은 예문은 비문으로 분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Hinrichs & Nakazawa(1998: 148)).

- (26) a. ..., weil ich [Maria] versucht habe [das Buch zu geben]  
 b. ..., weil ich [das Buch] versucht habe [Maria zu geben]

둘째, 비정합적 구성을 보이는 복합동사구의 경우 일단 외치가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부정사구도 외치되어야 하나 그들의 분석에 의하면 (27)의 모든 예문이 정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 (27) a. \*..., weil er sie überredet, [Karl [das Auto zu kaufen] zu zwingen]  
 b. \*..., weil er sie [Karl zu zwingen [das Auto zu kaufen]] überredet  
 c. ..., weil er sie überredet, [Karl zu zwingen [das Auto zu kauf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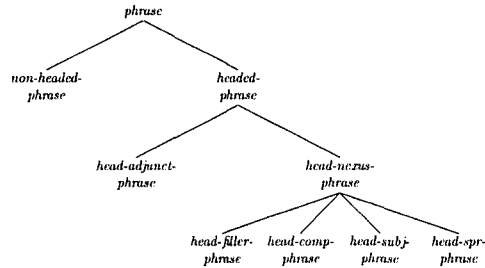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분석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3.2. 새로운 제안: 구문문법을 이용한 부분 외치된 VP 구문으로서의 제3구문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제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구문문법 틀 안에서 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분석은 구문 유형을 HPSG에서 이용하고 있는 유형위계 Typenhierarchie로 설정하고, 이 구문들의 유형위계 내에서의 제약의 계승과 제약의 미명세를 이용하여 현대 독일어의 제3구문을 VP가 외치된 경우의 특수한 경우로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제안을 “구문문법을 이용한 부분 외치된 VP 구문으로서의 제3구문 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Sag(1997), Sag & Wasow(1999), Goldberg(1995), Fillmore(1999) 등과 같이 자연언어의 모든 구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유형들이 제약의 강도에 따라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 (25)의 위계구조는 모든 구가 핵심어구(*headed-phrase*)와 비핵심어구(*non-headed-phrase*)로 이루어져 있고, 핵심어구는 핵심어와 부가어 구(*head-adjunct-phrase*)로 이루어져 있거나 핵심어와 그와 관련된 연쇄 구(*head-nexus-phrase*)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 (28) 구문 위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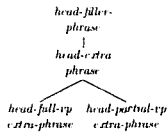


핵심어-연쇄-구(*head-nexus-phrase*)는 일반적으로 구구조문법의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구에 해당하는 핵심어-채움 구(*head-filler-phrase*), 핵심어-보충어 구(*head-comp-phrase*), 핵심어-주어 구(*head-subj-phrase*), 핵심어-수식어 구(*head-spr-phrase*)로 세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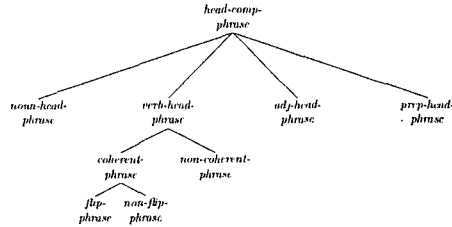
우리가 이 논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일어 동사구의 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정되고 있는 (25)의 유형위계에 덧붙여 (26)에 제시된 것처럼 핵심어-채움 구(*head-filler-phrase*)의 일종으로 핵심어-외치 구(*head-extra-phrase*)를 설정하고 그 하위유형으로 핵심어-완전한 동사구 외치구(*head-full-up-extra-phrase*)와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구(*head-partial-up-extra-phrase*)를 설정한다. 이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구문유형의 차이는 완전한 동사구가 외치되는 동사구를 허락하는가 아니면 동사구의 일부만 외치되는 구조를 허락하는가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우리는 동사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사구문을 위해 (27)에 제시된 것과 같은 구문위계를 더 설정한다. 정합적인 복합동사구를 허락하는 정합구(*coherent-phrase*)의 두 하위유형으로 역어순 정합구(*flip-phrase*)와 순어순 정합구(*non-flip-phrase*)를 설정하고 각각 상부장변위가 일어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동사구를 허락하도록 해 준다. 정합구(*coherent-phrase*)는 비정합구(*incoherent-phrase*)와 함께 핵심어-보충어 구(*head-comp-phrase*)의 하위유형 중의 하나인 동사핵심어 구(*verb-head-phrase*)의 하위유형이다.

(29) 구문 위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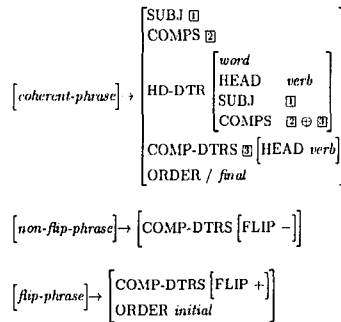


(30) 구문 위계 (3)



HPSG의 다른 모든 유형들이 그렇듯이 구문위계의 각 유형에도 고유한 제약들이 연결될 수 있는데, 본 논문의 대상인 복합동사구를 허락하도록 해주는 제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정합적 복합 동사구 구조를 위한 구문 제약으로 제시할 수 있다.

(31) 정합적 복합 동사구 구조를 위한 구문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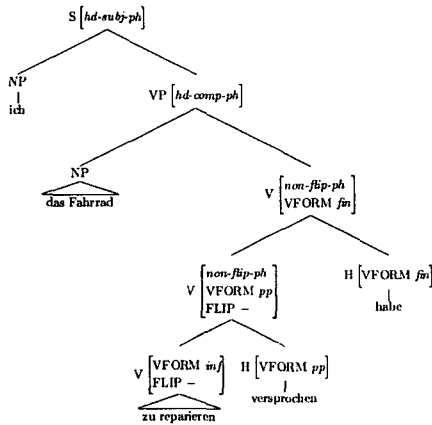


정합적 복합 동사구조를 위한 구문 제약은 우선 핵심어가 동사인 어휘범주 이면서 보충어로 다른 동사범주를 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핵심어와 보충어의 하위범주화 정보가 보충어 그 자신을 제외하고 공유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

다. 정합구의 두 하위 유형은 어순의 차이와 더불어 각 어휘의 어휘기재항에 명기되는 [FLIP *boolean*] 정보가 다르다. 나머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정보는 모두 상위 유형인 정합구로부터 계승받는다.

예를 들어 이 제약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정합적 복합 동사구조를 위한 구문 제약은 핵심어로서 동사인 단어층위의 어휘를 갖고 보충어로서 단어 층위 혹은 구인 보충어구를 취해서 핵심어인 어휘가 맨 끝에 위치하는 구를 허락한다. 예를 들어 (32)에서 [zu reparieren]과 [versprochen]이 우선 정합적인 구조를 이루고 그 결과 나온 구조와 [habe]가 결합하여 다시 정합적인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32) 아래의 수형도와 같다.

(32) ..., weil ich das Fahrrad zu reparieren versprochen habe



위의 (32)와 같은 독일어 동사구는 일반적으로 미명세로 어휘기재항의 정보로 제공되는 [FLIP -] 정보를 갖는 독일어 동사들이 모두 순어순 정합구 (*non-flip-phrase*) 제약을 두 번 연속 적용받아 생성된 구조이다. 그러나 목적어 통제동사인 *überreden*과 같은 동사들은 어휘기재항에 어휘적인 정보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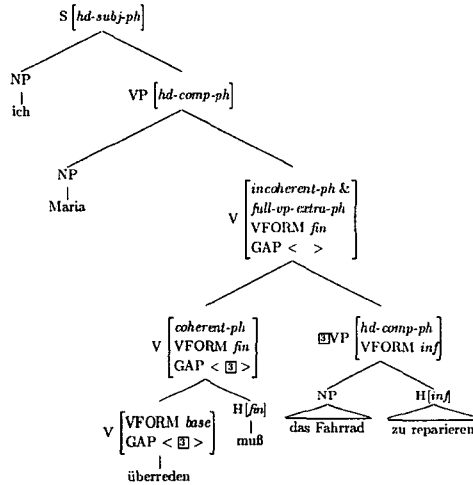
GAP 자질의 값이 빈 리스트가 아니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음 (33)에 제시된 핵심어-완전한 동사구 외치구 (*head-full- $vp$ -extra-phrase*) 제약을 받게 된다.

(33) 핵심어-완전한 동사구 외치구 (*head-full- $vp$ -extra-phrase*) 제약

$$[full- $vp$ -extra-phrase]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COMPS } \emptyset \\ \text{HD-DTR } \left[ \begin{array}{l} \text{verb} \\ \text{COMPS } \emptyset \\ \text{GAP } \langle \emptyset \rangle \end{array} \right] \\ \text{GAP-DTR } \left\{ \left[ \begin{array}{l} \text{verb} \\ \text{COMPS } \langle \rangle \end{array} \right] \right\} \\ \text{ORDER } \textit{initial} \end{array}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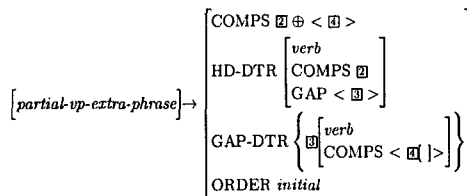
예를 들어 목적어 통제동사가 쓰인 예문은 (34)와 같은 구조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위의 제약에서 GAP-DTR의 값으로 나온 구의 COMPS 값이 빈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된 구가 동사구로서 그 안에 자기의 보충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 weil ich Maria überreden muss, das Fahrrad zu reparie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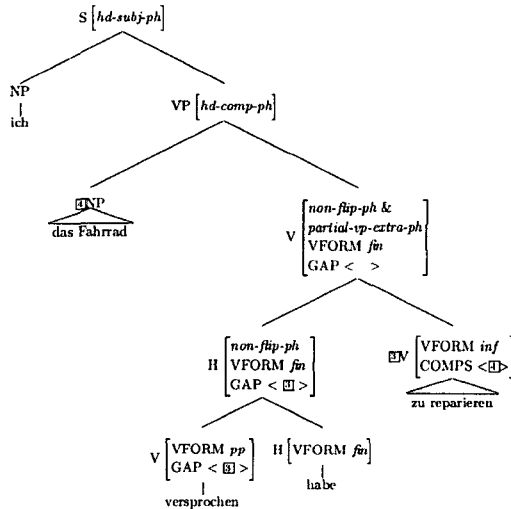
GAP-DTR의 값으로 나온 구의 COMPS 값이 빈 리스트인 (33)과는 달리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구 (*head-partial-vp-extra-phrase*) 제약은 반드시 하나의 보충어는 실현되지 않은 동사구를 외치시키는 제약을 표현하고 있다. 실현되지 않은 보충어는 상위구의 COMPS 값으로 합성되어 그 보다 더 상위의 구조에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 제약을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구 (*head-partial-vp-extra-phrase*) 제약을 통해 부과한다.

(35)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구 (*head-partial-vp-extra-phrase*)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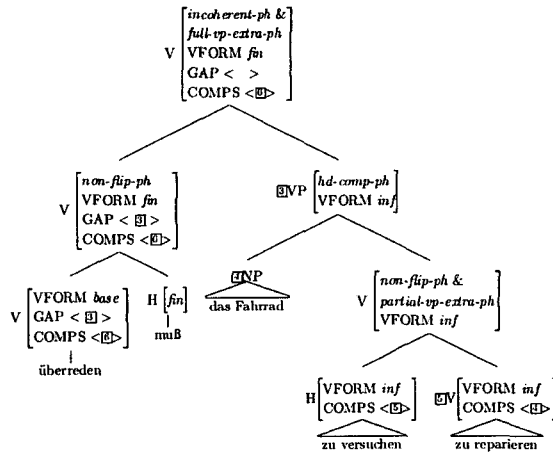
(35)에 제안한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구 (*head-partial-vp-extra-phrase*) 제약은 다음과 같은 독일어 제3구문의 구조를 정확히 기술해 낸다. 우선 (36) 예문에서 [versprochen habe]은 정합구 제약의 하나인 순어순 정합구 (*non-flip-phrase*) 제약에 의해 결합이 되고, 그 다음 이 결합된 정합구에 [zu reparieren]이 [versprechen]의 어휘기재항에 GAP의 값으로 기입되어 (35)에 있는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구 (*head-partial-vp-extra-phrase*) 제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 [zu reparieren]의 보충어인 [das Fahrrad]는 외치된 부분 동사구가 정합구와 결합한 후 생성된 전체 동사구의 보충어로 계승되어 핵심어-보충어 구 제약에 따라 수형도를 구성한다. 이 구조는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대상으로 제시한 독일어의 제3구문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석에 따르면, 독일어의 제3구문은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구 (*head-partial-vp-extra-phrase*) 제약과 순어순 정합구(*non-flip-phrase*) 제약에 의해 분석된다.

(36) ..., weil ich das Fahrrad versprochen habe zu reparieren



이제 우리의 제안이 더 복잡한 예문인 (37)과 같은 예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예문 (37)은 [überreden]에 의해 완전한 동사구가 외치되어 있고, 그 외치된 원래 동사구인 [das Fahrrad zu reparieren zu versuchen]에서 제3구문 형성이 일어나서 [zu reparieren]이 자신의 보충어인 [das Fahrrad]를 [zu versuchen] 앞에 놔두고 자기 자신만 외치되어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위의 문장에 제시된 이 복합적인 문장에 대한 직관이 그대로 (37)에 있는 수형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 weil ich Maria überreden muss, das Fahrrad zu versuchen  
zu reparieren



지금까지 우리는 구문문법적 제약을 HPSG의 유형위계로 상정하고, 이 유형위계의 각 유형에 가해지는 제약을 구문적 특징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던 독일어의 제3구문을 분석해 보았다. 이제 이 절을 끝맺기 전에 제안된 분석이 이전의 분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Hinrichs & Nakazawa(1998)의 분석에 의하면 *geben*과 같은 수여동사가 *versuchen*과 같은 제3구문을 유도하는 동사에 내포되었을 경우 모두 비문법적인 것으로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서는 핵심어-부분적인 동사구 외치 제약에 따라 GAP-DTR의 동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보충어 중 하나는 반드시 상위문의 동사의 보충어로 논항합성이 되도록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장 (= (26))을 문법적인 직관에 맞게 모두 정문으로 제대로 분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8) a. ..., weil ich [Maria] versucht habe [das Buch zu geben]  
 b. ..., weil ich [das Buch] versucht habe [Maria zu geben]

둘째, 비정합적 구성을 보이는 복합동사구의 경우 일단 외치가 일어나면 그 안에 있는 부정사구도 외치되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예문도 Hinrichs & Nakazawa(1998)의 분석에서는 문제가 되었다.

- (39) a. \*..., weil er sie überredet, [Karl [das Auto zu kaufen] zu zwingen]  
 b. \*..., weil er sie [Karl zu zwingen [das Auto zu kaufen]] überredet  
 c. ..., weil er sie überredet, [Karl zu zwingen [das Auto zu kaufen]]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서는 외치를 반드시 요구하는 *überreden*이나 *zwingen*과 같은 동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어휘기체항의 GAP 자질의 값으로 자기가 하위범주화하는 동사구 전체가 외치될 것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9)와 같은 예문에서 외치가 연속해서 두 번 일어난 경우만 문법적인 문장으로 제대로 분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inrichs & Nakazawa(1998)의 분석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장들은 우리의 분석에서는 문제없이 기술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4. 결론

독일어 동사구의 구조는 독일어 문장의 통사구조를 밝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구조는 지금까지도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조이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어에서 동사구의 구조가 문법이론의 두 가지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도적 분석과 제약기반 분석에서 서로 다른 구조를 기본 구조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독일어의 제3구문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제3구문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유도적 접근법 *derivationaler Ansatz*과 선언적 접근법 *deklarativer Ansatz*이라 구분짓고 유도적 접근법에서는 근본적으로 임시변통적 조작이 없이는 제3구문의 구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3구문에 대한 유도적 접근법 보다는 통합기반문법 *unifikationsbasierte Grammatiken*이나 제약기반문법 *constraint-basierte Grammatiken*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선언적 접근법이 관념적으로 더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본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언적 접근법에 근거한 분석을 위해서 *Bech(1955/57)*의 정합성 개념을 도입하고 이 개념을 구문문법적인 제약으로 형식화한 유형위계와 각 유형에 대한 제약을 제안하고 해당 어휘기재항에 명세된 정보를 기반으로 옳은 구조를 유도해 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문문법적 특성을 이용한 제3구문의 분석은 나아가서 독일어 복합동사구의 구조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자세한 어휘기재항의 구성이나 어휘규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를 하지 못하고, 적절한 어휘기재항이 있음을 가정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수의적으로 정합적인 복합동사구 구성이 갖는 일반적인 문법적 특이성들을 이 논문에서 제안한 분석이 옳은 예측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일부만을 검토한 것으로 만족하였다. 이를 포함한 관련 주제들을 다 다룬다는 것은 분명 본 논문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연구로 미룬다.

### 참고문헌

- 신수송 (1991): 통합문법이론의 이해 - 어휘기능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최도규 (1999): “독일어 간밀결과구문에 대하여”, *독어학* 제1집, 141-163.
- Baker, Kathryn (1993): “An Integrated Account of German Verbal Phenomena in HPSG”, ms., Carnegie Mellon University.
- Bech, Gunnar (1955/57): *Studien über das deutsche verbum infinitum*. Copenhagen: Munksgaard.
- de Haan, Germen (1993): “The Third Construction in Frisian”, in Werner Abraham & Joseph Bayer (Hrsg.), *Dialektsyntax*, 117-130,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den Besten, Hans & Jerry Edmondson (1983): “The Verbal Complex in Continental West Germanic”, in Werner Abraham (Hrsg.), *Erklärende Syntax des Deutschen*, Amsterdam: Benjamins.
- den Besten, Hans & Jean Rutten (1989): “On Verb Raising, Extraposition and Free Word Order in Dutch”, in Dany Jaspers (Hrsg.), *Sentential Complementation and the Lexicon - Studies in Honor of Wim de Geest*, Dordrecht: Foris.
- Evers, Arnold (1975): *The Transformational Circle in Dutch and German*, Doktorarbeit, Universiteit Utrecht.
- Fanselow, Gisbert (1989): “Coherent Infinitives in German: Restructuring vs. IP-Complementation”, in Ch. Bhatt, E. Löbel & C. Schmidt (Hrsg.): *Syntactic Phrase Structure Phenomena in Noun Phrases and Sentences*. Amsterdam: John Benjamins. 1-16.
- Fillmore, Charles (1999): “Inversion and Constructional Inheritance”, in Gert Webelhuth *et al.* (Hrsg.): *Lexical and Constructional Aspects of Linguistic Explanation*. 123-128. Stanford: CSLI Publications.
- Geilfuss, Jochen (1991): “Zur Syntax des Verbalkomplexes”, in Jochen Geilfuss, *Verb und Verbphrasensyntax*, Arbeitspapiere des Sonderforschungsbereichs 340 Nr. 11-91, 59-86, Universität Tübingen.
- Goldberg, Adel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ewendorf, Günther (1991): *Aspekte der deutschen Syntax: Eine Rek-*

- tions-Bindungs-Analyse*, 2. Aufl., Tübingen: Gunter Narr.
- Haider, Hubert (1991): *Fakultativ kohärente Infinitivkonstruktionen im Deutschen*, Arbeitspapiere des Sonderforschungsbereichs 340 Nr. 17-93, Universität Stuttgart.
- Haider, Hubert (1993): *Deutsche Syntax - Generativ*, Tübingen: Gunter Narr.
- Hinrichs, Erhard & Tsuneko Nakazawa (1989a): "Flipped Out: AUX in German", in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LS 25]*, 193-202.
- Hinrichs, Erhard & Tsuneko Nakazawa (1989b): "Subcategorization and VP Structure in German", ms., Vortragspapier auf dem Symposium on Germanic Linguistics [Zuerst abgedruckt in Erhard Hinrichs & Tsuneko Nakazawa, *Aspects of German VP Structure - An HPSG Account*, 1-12, SfS-Report-01-93], Seminar für Sprachwissenschaft, Universität Tübingen.
- Hinrichs, Erhard & Tsuneko Nakazawa (1993): *Aspects of German VP Structure - An HPSG Account*, SfS-Report-01-93, Seminar für Sprachwissenschaft, Universität Tübingen.
- Hinrichs, Erhard & Tsuneko Nakazawa (1994): "Linearizing AUXs in German Verbal Complexes", in John Nerbonne, Klaus Netter & Carl Pollard (Hrsg.), *Germa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11-37,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 Hinrichs, Erhard W. & Tsuneko Nakazawa (1998): "Third Construction and VP Extraposition in German: An HPSG Approach", in Erhard W. Hinrichs, Andreas Kathol & Tsuneko Nakazawa (Hrsg.), *Complex Predicates in Nonderivational Syntax*, Syntax and Semantics 30, 115-157, New York: Academic Press.
- Kiss, Tibor (1993): *Infinite Komplementation, Neue Studien zum deutschen Verbum infinitum*, Doktorarbeit, Universität Wuppertal.
- Kiss, Tibor (1994): "Obligatory Coherence: The Structure of German Modal Verb Constructions", in John Nerbonne, Klaus Netter & Carl Pollard (Hrsg.), *German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71-108, Stanford: CSLI.
- Müller, Stefan (1999): *Deutsche Syntax-deklarativ. Head-Driven Phrase*

- Structure Grammar für das Deutsche*. Linguistische Arbeiten 394.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Pollard, Carl (1996): "On Head Non-Movement", in Arthur Horck & W. Sijtsma (Hrsg.), *Discontinuous Constituency*, Berlin: Mouton de Gruyter.
- Pollard, Carl &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mbow, Owen (1992): "Linguistic and Computational Analysis of the German 'Third Construction'", in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30th Annual Meeting of the ACL, 277-279*.
- Rambow, Owen (1994): *Formal and Computational Aspects of Natural Language Syntax,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Rosengren, Inger (1992): "Zum Problem der kohärenten Verben im Deutschen", in Peter Suchsland (Hrsg.), *Biologische und soziale Grundlagen der Sprachfähigkeit, 265-297*, Tübingen: Niemeyer.
- Sag, Ivan & Tom Wasow (1999): *Syntactic Theory - A Formal Introduction*. Stanford: CSLI Publications.
- Santorini, Beatrice & Anthony Kroch (1990): "Remnant Extraposition in German", ms., University of Pennsylvania.
- von Stechow, Arnim & Wolfgang Sternefeld (1988): *Bausteine syntaktischen Wissens - Ein Lehrbuch der generativen Grammatik*,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von Stechow, Arnim (1988): "Status Government and Coherence in German", in Günther Grewendorf & Wolfgang Sternefeld (Hrsg.), *Scrambling and Barriers, 143-198*,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 Uszkoreit, Hans (1987): *Word Order and Constituent Structure in German*, CSLI Lecture Notes Nr. 8, CSLI, Stanford University.
- Wöllstein-Leisten, Angelika (1994): "Zur Syntax der dritten Konstruktion", ms., Universität Stuttgart.
- Wöllstein-Leisten, Angelika & Axel Heilmann (1997):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 Conditions for Infinitival Complementation*, Arbeitspapiere des Sonderforschungsbereichs 340 Nr. 104, Universität Stuttgart.
- Zifonun, Gisela, Ludger Hoffmann & Bruno Strecker (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Bd. 3, Berlin: Walter de Gruyter.

## Zusammenfassung

### Eine constraint-basierte Analyse zur Syntax der dritten Konstruktion im Deutschen

Ryu, Byong-Rae(Chungnam National Univ.)

Die dritte Konstruktion zeichnet sich dadurch aus, dass Elemente, die vom zu-Infinitiv im 'Nachfeld' abhängen, links vom Matrixverb auftreten. Die dritte Konstruktion weist sowohl Eigenschaften auf, die sie als inkohärent ausweist, als auch Eigenschaften, die als syntaktische Reflexe von Kohärenzbildung bezeichnet werden können. Das vollständig extraponierte zu-Infinitivkomplement ist immer satzwertig (inkohärent), während der intraponierte zu-Infinitiv sowohl nicht-satzwertig (kohärent), als auch satzwertig (inkohärent) sein kan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eine constraint-basierte Analyse zur Syntax der dritten Konstruktion im Deutschen dargestellt. Die Analyse wird im Rahmen der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durchgeführt, bei der ich weder von der Bewegung der Komplemente aus dem Nachfeld noch von der Linearen Präzedenz mit neuen Merkmalen ausgehe, sondern von der Typenhierarchie der Konstruktionstypen mit relevanten Lexikoneinträgen. Es wird zu zeigen versucht, dass die dritte Konstruktion ein Komplementationstyp von *non-flip-phrase* und *partial-up-extra-phrase* ist.

[검색어] 제3구문, 구문문법, HPSG, 유형위계, (비)정합성, 복합동사구

Die dritte Konstruktion, Konstruktionsgrammatik, HPSG,  
Typenhierarchien, (In-)Kohärenz, Verbalkomplex

류병래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ryu@cnu.ac.kr